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터키! 그 가능성을 보다」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2. 4. 12 ~ 4. 20(7박9일)
- 방 문 국 : 터키
- 연 수 단 : 10명(의원7명, 공무원3명)



구 미 시 의 회



공무 국외연수 개요

1. 연 수 국 : 터 키

2. 연수 배경

◇ 동서양의 문물과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상업의 교류지로 세계를 지배한 3대 강국중의 하나였던 지역으로 다양한 교통수단, 문화를 지니고 있는 터키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 터키의 각종 현황들을 직접 견학하여 우리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찾아보는 한편, 관광개발 및 문화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3. 기 간 : 2012. 4. 12(목) ~ 4. 20(금)(7박9일)

4. 보고서 작성 : 허복 의장 외 9명

5. 참가자 명단

연번	소 속 위 원 회	성 명	연번	소 속 위 원 회	성 명
1	의 장	허 복	6	산업건설위원회	박 주 연
2	기획행정위원회	이 명 희	7	산업건설위원회	임 춘 구
3	산업건설위원회	김 정 곤	8	직 원	임 명 섭
4	산업건설위원회	김 정 미	9	직 원	전 명 성
5	산업건설위원회	박 교 상	10	직 원	장 인 희

목 차

I. 서 론(연수개요)

1. 연수의 목적	3
2. 연수세부내용	3
3. 주요방문 내용	3
4. 연 수 일 정	4

II. 본 론

1. 방문국 소개	5
2. 주요 방문지	18
3. 분야별 벤치마킹	33

III. 결 론	39
(연수후기)	

IV. 참고 자료	41
-----------------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서 론(연수개요)

1. 연수의 목적

- ◇ 다양한 문화와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 ◇ 방문 지역의 관광 개발 및 문화정책, 문화재 보존실태 등을 견학하여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찾는 등 의원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자 함.

2. 연수세부내용

- ◇ 연 수 국 : 터키
- ◇ 기 간 : 2012. 4. 12(목) ~ 4.20(금) 7박 9일
- ◇ 참여인원 : 10명 (의원 7/ 직원 3)

3. 주요방문 내용

- ◇ 터키 관광개발 및 문화정책 현황 견학
- ◇ 지역특성화 사업 현장 참관
- ◇ 고대 아파트 건축방식 및 지하도시 조성실태 견학
- ◇ 한-터키 FTA와 관련 구미와 연계 가능 산업 모색

4. 연수일정

일자	일 정	비 고
제1일 4.12(목)	◦ 인천 → 터키(이stanbul)	
제2일 4.13(금)	◦ 터키의 주민생활 견학 ◦ 앙카라 시청 및 시의회 방문 ◦ 지역특성화 사업 현장 참관 - 한국공원, 6.25 참전용사비	이stanbul 앙카라
제3일 4.14(토)	◦ 괴레메 야외박물관 견학 ◦ 고대아파트 건축방식 및 지하도시 조성실태 견학 ◦ 콘야 시청, 시의회 및 농업 현장(콘야 평야) 시찰	카파도키아 콘야
제4일 4.15(일)	◦ 로마도시 유적 보존 현장(아폴론신전) ◦ 아스펜도스 대극장과 복도의 건축기법 견학	콘야 시데
제5일 4.16(월)	◦ 파묵칼레의 관광진흥과 유물보전 현장 견학	안탈리아 파묵칼레
제6일 4.17(화)	◦ 에페소지역 유물 보존 및 관광상품 개발실태 파악 - 원형경기장, 목욕탕, 도서관 등 ◦ 쉬린제 농가 방문	에페소 쉬린제
제7일 4.18(수)	◦ 문화재 보존과 건축방식(툽카프, 돌마바흐체) 견학 ◦ 지하수로의 조성과 보존실태 견학 ◦ 전통시장 방문(구미에 접목가능 분야 벤치마킹)	이즈미르 이stanbul
제8일 4.19(목)	◦ 이stanbul 시청, 의회 견학 ◦ 터키(이stanbul)→인천	이stanbul
제9일 4.20(금)	◦ 터키(이stanbul)→인천	

Ⅱ. 본 론

1. 방문국 소개

□ 일반 현황

구 분	내 용
인 구	약74,724백만명(2011. 12월말 터키통계청 기준)
면 적	779,452km ² (한반도의 3.5배)
수 도	앙카라(Ankara)
주요도시	이스탄불(Istanbul), 이즈미르(Izmir), 콘야(Konya)
주요민족	터어키(Turkish,90%), 쿠르드(Kurd) 및 아랍(Arab, 10%)
주요언어	터어키(Turkish,90%), 쿠르드어(Kurdish) 및 아랍어(Arabic,10%)
종 교	전 국민의 98%가 이슬람교(수니파), 그밖에 기독교, 유대교, 그리스정교 등





국토의 97%가 아나톨리아 반도로 서남 아시아에 속해 있고 3%는 유럽 대륙의 동남부 트라키아 반도에 위치하여 두 대륙을 잇는 동서 문화의 접점으로 정식국명은 터키 공화국(Republic of Turkey)'이다.

로마와 기독교 문화, 오스만투르크와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며 수많은 역사 유적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다는 이유로 유럽에서는 동양처럼, 동양에서는 유럽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북쪽으로 흑해, 동쪽으로格鲁지아, 아르메니아, 이란이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이라크, 시리아, 지중해, 서쪽으로 에게해, 그리스,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6.25 파병을 통해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칭해 왔으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 터키는 에덴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부터 노아 방주의 잔해, 아브라함의 거주 지역이었던 ‘하란’ 등 성서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온 나라로, 이외에도 성서상의 유적과 사도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로마 유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도 손꼽힌다.

▶ 지리

총면적은 780,5800km²로 (한반도의 3.5배),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터키는 에게해, 지중해, 마르마라해, 흑해를 접하고 있다. 보스포루스 해협, 마르마라해, 다르다넬스 해협을 경계로 아시아지역인 아나톨리아와 유럽지역인 트라케로 나뉘어진다.

터키는 위치에 따라 흑해, 말마라, 에게해, 지중해, 중앙 아나톨리아, 동쪽 아나톨리아, 남동 아나톨리아의 7개 지역으로 나뉜다.

▶ 경제

터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광활한 영토에서 사시사철 먹거리가 풍족한 천혜의 땅이지만 석유 등 에너지자원은 부족하며 경제적으로도 아직 개발도상국에 가깝다.

1963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가 시작되었지만 국가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철강, 시멘트 등 중공업분야보다 식·음료업, 섬유, 피혁가공업 등 경공업 분야가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전 국토에 퍼져 있는 역사유적에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가전 산업도 세계적인 대기업들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국민성

터키 국민은 오스만 제국의 영광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히 크며, 6.25 참전으로 맺은 인연으로 한국인을 '코렐리'(Koreli)라고 부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제발생시 적극 도와주려 한다.

전통적으로 체면과 무예를 존중하며, 매우 정열적이고 다혈질이나 서두르지 않으며, 신앙의 전사(戰士)라고 불리는 가지(Gazi)의 정신을 윤리의 주요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터키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동서양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

▶ 정치

터키는 의회제도를 채택한 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성립한 이래 강력한 세속주의 전통을 발전시켰다.

터키 헌법은 이 나라 법의 근간으로 헌법에서 정부의 주요 원칙을 밝혔으며, 터키를 단일 중앙 국가로 규정하였다. 국가 원수는 터키의 대통령이며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간선제로 선출된다.

행정부는 터키의 총리와 터키의 내각이 행사하며, 입법부와 입법권은 단원제 의회인 터키 대국민의회에 속한다. 사법부는 행정부 및 입법부와 독립되어 있으며, 헌법 재판소에서는 터키의 법률이 헌법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한다. 터키 행정 법원은 행정 소송의 마지막 심급 재판소이며, 대법원은 그 밖에 다른 소송을 맡는다.

터키 의회는 5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가 4년인 이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81개의 행정 주를 대표하여 8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다.(이스탄불은 선거구가 셋으로 분리되며, 앙카라와 이즈미르는 각각 둘로 분리되는데, 이 도시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

의회에 절대 다수당이 없고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내 진입 제한 기준인 최소 10%의 득표를 얻은 정당만 원내 대표자를 배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입후보자의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을 통해 현재 일곱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소속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소 10%의 표를 얻어야 의원에 선출될 수 있다.

▶ 역사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점으로 터키 민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러 민족들이 교류하였으며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아나톨리아 원주민의 정착지였으며 청동기 문화와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차례로 꽃피웠다. 트로이 전쟁으로 트로이가 그리스에 멸망할 무렵 트라기아인에게 멸망당하며 그리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BC 6세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점령당해 200여년 정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다가 그리스 헬레니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이후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 로마식민통치를 300여 년 간 받았으며, 395년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으며 비잔틴 제국의 영향권에 속하게 되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11세기 셀주크 투르크족이 중앙아시아에서 비잔틴 제국을 제압하면서 아나톨리아반도 대부분을 점령하지만 14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당하고,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 영토확장에 앞장선다.

13-14세기 오스만 족은 서부 아나톨리아와 남동부 유럽의 비잔틴을 영토로 삼고, 그리스도교를 신봉하는 발칸에 포함된 국가들을 통치하였으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오스만제국이 수도를 이스탄불로 개칭하고, 유프라테스 강, 헝가리까지 영토를 확장한다.

오스만제국은 16세기 말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및 동유럽까지 영토를 확장 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나 술탄 술레이만 1세 (1494)의 통치 후부터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퇴보를 거듭했다.

19세기 그리스와 이집트의 독립을 허용하면서 통치권을 잃었으며, 19세기 말 소수 민족과 소수 종교 분쟁으로 지방자치를 허용했던 비이슬람 종교자치제가 붕괴되면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대학살이라는 비극과 패전으로 해외 영토를 잃고, 연합군측의 터키불합론을 야기했다.

1908년 청년 투르크당의 케말 파샤 장군이 이끈 군부와 지식인들이 혁명을 일으켜 술탄국왕을 해외로 추방하며 1923년 앙카라를 수도로 하는 터키공화국이 탄생되었다.

▶ 풍속

터키는 종교 공휴일로서 쉐케르 바이람(Seker Bayram : Sweet Festival)과 쿠르반 바이람(Kurban Bayram : Sacrifice Festival)이 있으며, 매년 날짜가 다르다.

바이람 전 한달 동안은 라마단(Ramadan)으로 일출부터 일몰 시간까지 금식하는데, 가장 큰 종교 축제인 바이람 기간 중에는 새 옷을 입고 친척 방문 등을 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카드를 보낸다.

터키인들은 친족과 가족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가정의 권위를 존중한다.

▶ 사회, 문화

기록에 의하면 터키는 기원전 2000년, 중앙아시아 동북부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터키의 조상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훈족으로, 중국 사람들은 기원전 220년에 수립된 터키 테오만 야부그 왕국을 흉노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터키 국민들은 그들의 조상이 중앙아시아 동북부에서 기원하여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16개 군주국이 흥망을 거듭하여 터키인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서기 10세기 경이라고 한다.

중세에 아랍지역을 횡단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터키인들 대부분이 회교로 개종하였으며, 아랍문자를 도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터키 국민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자연 숭배사상과 풍습을 오늘날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풍습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한국어와 같은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터키어는 문장 구성순서, 모음조화, 어미 활용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과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는 점이다.

▶ 기후

내륙지방은 대륙성 기후이며 해안지방은 해양성 기후로 지중해 및 에게해 연안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은 대체로 고온건조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다습하다.

흑해연안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연중 고른 분포의 강수량(연평균 2,500mm)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온의 월교차가 거의 없다.

북동부 및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는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어 여름에는 고온건조하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1-2월이 가장 추우며, 겨울철 평균기온은 0 -10 임. 봄, 가을이 짧으며 4월, 11월, 12월이 우기에 해당된다. (특기사항: 건조하고 일교차가 심함)

평균 고도 902m / 평균기온: 11.8 (최저: -24.9 , 최고: 40.0)

평균습도: 60% / 연평균 강수량: 367mm

□ 주요 도시

◆ 이스탄불 [Istanbul]

도시가 형성된 기원전 660년 그리스시대에는 비잔티움(Byzantium)이라고 불렸으며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가 동로마제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이라고 불렸다.

1453년 술탄 메메드 2세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오스만제국의 중심적인 도시가 되었다. 보스포러스 해협의 남쪽 입구에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다.

1923년까지 1,600년 동안 수도였던 이스탄불에는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오스만 제국시대에 이르는 다수의 유적들이 분포해 있다.

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 오스만은행을 비롯하여 국립은행·외국은행이 많다. 터키 최대의 공업도시이기도 한 이스탄불은 섬유·식품가공·농기구·고무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군수공업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스탄불항은 전국 수입액의 70%, 수출액의 20%를 취급하며 매일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130척이 넘는다.

◆ 앙카라(Ankara)

옛날에는 앙고라로도 불렸다. 소(小)아시아 아나톨리아 고원의 북쪽 기슭에 있으며, 해발 고도 800~1,000m의 사카리아강 상류인 앙카라강 연안에 있다.

아나톨리아 전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통로에 있으며, 1923년 10월 13일 아타튀르크 대통령에 의해 터키 공화국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앙카라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타튀르크는 통일 국가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지나치게 서쪽에 치우쳐 있는 이스탄불 대신 내륙 깊숙하게 위치한 앙카라를 선택한 것이다.

초기엔 불과 6만 명의 인구였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국가 기관과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 등을 정책적으로 앙카라로 이전하는 등 계획적인 발전을 꾀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후 앙카라는 급속도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가장 현대적이고 상업적 기능 도시로 시가지에는 국회의사당, 정부기관, 외국공관 등이 있고 앙카라대학, 중동공과대학, 고고박물관, 민속박물관 등도 있다.

도로, 철도교통의 요충지이자 터키 내륙 여행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잊혀졌던 역사적인 도시인 앙카라에서는 일대의 아나톨리아 고대문명의 발자취를 찾아 볼 수 있다.

확장된 도로와 시내의 모습들은 타지역과는 다른 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문명의 도시인만큼 시내 곳곳에서 유서깊은 유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앙카라의 주변은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구릉이 둘러싸고 있으며 해발 고도 약 850m의 고원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원으로 아나톨리아 지방 최고의 비옥한 농지와 숲이 펼쳐져 있다.

◆ 카파도키아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카파도키아는 히타이트 왕조의 중심지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함으로써 여행자들의 발길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수한 지평은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해 온 기독교인들에게 훌륭한 피난처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7세기 말경의 아랍인들의 침략을 피해 그들은 이곳에 굴을 파고 거주하면서 암굴 속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남겨 놓았다.

지리적으로 터키의 가장 중부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1,000미터 구릉이 이어지는 아나톨리아 고원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지진과 화산폭발로 버섯 모양의 바위나 종교의 박해를 피해 산으로 숨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든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다.

헤아릴 수 없는 뾰족한 기암괴석들이 이어진 카파도키아는 1천만 년 전에 일어났던 화산활동과 지진, 비바람이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품을 안고 있다.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270km가량 떨어져 있다.

이곳의 기후는 건조하고 각박하지만 오래전 활화산이었을 당시 용암이 덮은 계곡에 비와 바람으로 침식하여 버섯 모양의 독특한 볼거리를 만들었다.

과거에는 이런 바위를 파고 들어가 교회 혹은 거주지를 만들어 살았으며 요즘은 이런 지형을 이용해 특별한 호텔을 운영하기도 한다.

◆ 안탈리아(Antalya)

안탈리아 만(灣)에 동서로 길게 면한 항구도시로, BC 2세기 페르가몬(Pergamon) 왕국 시대에 건설되어 아달리아라 불렸다. 페르가몬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로스(Attalus) 2세의 땅위에 천국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받고 건설된 도시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BC133년 로마에 항복하였고 135년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이 지방의 중심 도시가 되어 번창하였다. 그 후 비잔틴·몽골·베네치아·제노바 등에게 지배당했으며, 15세기에는 투르크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지중해 어획물과 도시 부근에 농업생산이 활발한데 특히 감귤 생산량이 많다.

양잠업의 거래 중심지이며, 잠사(蠶絲) 전문학교가 있다. 그 외 올리브·바나나도 많이 생산된다. 비교적 경공업이 이루어지고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안탈리아는 여러 제국이 점령하면서 다양한 유적들이 풍부하게 남았다. 고대 헬레니즘과 비잔틴 유적, 로마 시대의 유적인 하드리아누스의 문, 셀주크 왕조의 이슬람 사원, 오스만제국의 건축물 등이 남아 있다.

칼레이치(Kaleiçi) 구시가지가 유명하고 흐드르륵 요새도 안탈리아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장소이다.

◆ 파묵칼레

파묵칼레는 목화솜으로 이루어진 성이란 뜻으로 도시는 온통 눈이 내린 것 같이 새하얀 모습이다. 칼솜 성분의 온천수가 흘러내리면서 층층이 바위를 지금의 하얀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다.

게다가 이 온천수는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역사적으로도 치유와 휴양을 위해 많은 위인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관광객과 지나친 개발로 온천수가 줄어들어 터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계획성을 갖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지역 외에도 곳곳에 고대 유적들이 들어서 있어 원형극장이나 신전 등 당시의 건축물도 구경할 수 있다.

◆ 에페소

터키 지역 이즈미르 남서쪽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페소는 상업 중심지로 발전했다. 기원전 11세기에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건설된 고대 도시 국가의 유적지로 기원전 620년쯤 세워진 아르테미스 신전은 소아시아, 그리스에 이르는 지역에서 많은 순례자를 끌어 모았다.

이곳은 기원전 7~6세기가 최전성기로, 기원전 6세기 후반에 페르시아 지배를 받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페르시아 전쟁으로 해방이 된 뒤에는 그 세력을 떨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라 원정 뒤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 부흥했다.

1세기 성바울로는 이곳에 그리스도교를 전하였다.

에게해 연안의 도시로 무역과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발전했으나 전염병이 돌고 항구가 묻히자 지금의 자리로 이동했다고 전한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전해온다.

현재 이곳에는 바리우스의 목욕탕, 오데온, 플리타네이온, 메미우스의 비바실리카, 트라야누스의 샘, 크레티아 거리, 하드리아누스 신전, 대극장, 세루시우스 도서관 등이 남아 있다. 오늘날 페허에서 수많은 유적이 발굴된다.

2. 주요 방문지

◀ 앙카라시청과 앙카라시의회 ▶

앙카라는 구시가와 신시가로 나뉘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구시가는 북동부의 앙카라 구릉에 있는 오스만시대의 앙카라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좁고 정비되지 않은 통로와 바자르(시장)를 중심으로 가옥이 밀집해 있으며, 시내에는 많은 사원과 히타이트박물관(고고학박물관)·민속박물관이 있고, 부근에는 선사시대와 고대, 또는 비잔틴시대 등의 유적도 풍부하다. 구시가의 남쪽에는 도시계획에 바탕을 둔 정연한 신시가가 자리 잡고 있다.

중앙을 관통하는 아타튀르크 거리 연변에 국회의사당을 비롯하여 관공서·은행·오페라하우스 등 근대적 건축이 이어져 있고, 앙카라 대학도 있다. 그 밖에 시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릉에는 케말 아타튀르크의 무덤이 있다.

앙카라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농산물의 집산지이며, 공업으로는 시멘트·금속 등의 공장 외에 트럭공장이 있다.



앙카라 시청에서



시청에서 본 앙카라 시 전경

앙카라 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1923년 터키가 공화국이 되면서 수도 수호의 용이성을 위해 삼면이 바다인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옮겼다고 한다. 앙카라는 당시 프랑스 도시설계학자에 의해 설계된 계획도시로 앙카라시청에서 바라본 도시는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다.



앙카라시의회

앙카라 시의회는 선출직 의원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초 건설, 복지 등 관련 상임 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토의 및 결정을 한다고 했다.

의회는 주민 여론을 많이 청취하여 주요 의사 결정을 하며, 국회보다 더 막중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 한국공원 6.25 참전용사비 ▶

한국공원은 서울과 앙카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1973년 조성되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희생당한 터키의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석가탑을 본떠 만든 참전 기념탑이 공원의 중심을 이룬다.

기념탑에는 한국전에서 참가한 터키인의 명단이 적혀 있고 한글로 된 추도글도 있다.

6.25전쟁은 터키가 공화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참전한 전쟁으로 터키가 오히려 자부심과 고마운 감정을 담는 이유라고 한다.

터키는 미국, 영국에 이어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군인들을 파병하였으며 765명이 사망하고 175명이 행방불명되었다.



한국공원 6.25 참전용사비



묵념을 올리는 구미시의회 의원들

인천에서 터키까지는 비행기로만 11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로 6.25 전쟁에 참전한 터키의 젊은 군인들은 배를 타고 왔다고 하니 그 시간이나 노력에 다시 한번 뭉클했다.

◀ 아타튀르크 추모관 ▶

터키 건국의 아버지인 터키 공화국 초대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유럽의 3%와 에게해를 바꾸는 협정을 그리스와 체결하여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차지했다.

또한 제정 분리, 개방적 여성 활동, 문자 제정, 태양력 사용, 성(姓) 사용 의무화, 여성 참정권 부여, 주5일제 근무 등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터키의 아버지로 추앙 받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향을 받은 인물로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 살았고 고인이 된 지금도 국부로 칭해지며 터키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 괴레메 야외박물관, 우치히사르, 파샤바게곡, 지하도시 ▶

괴레메 계곡에는 4세기경부터 기독교도가 살았다. 그런데 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슬람교도의 탄압이 심해지자 계곡의 바위를 파서 동굴을 만들었으며 이 동굴에 교회와 수도원을 세웠다.

지금도 이곳에는 400 ~ 500개 동굴사원이 흩어져 있다.

보존이 잘된 교회 내부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린 프레스코화가 지금도 남아 있다. 성 바르바라 교회, 사과나무의 교회, 어둠의 교회, 뱀의

교회 등의 벽화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금지하고 있어 벽화에 나오는 인물의 눈은 지워지고 없어 안타까움을 준다.

우치히사르는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옛날 이곳에 살던 수도사들이 비둘기를 길렀다고 하여 비둘기 골짜기라고도 부르며 지금도 비둘기들이 많이 살고 있다.

평범한 바위산에 들어선 집들이 예술품처럼 아름다우며 뛰어난 괴레메 골짜기의 전경이 내려다보인다.

파샤바 계곡은 송이버섯과 매우 비슷한 버섯바위가 펼쳐져 있는 골짜기이다. 현지 사람들은 버섯바위에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믿어 요정이 춤추는 바위라고 부른다.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 신앙생활에 몰두할 것을 주장한 고대 수도사가 살았던 바위가 있어 수도사의 골짜기'라고도 한다. 버섯 모양의 독특한 바위는 이곳 특유의 지층 특징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카이막클로는 깊이 85m까지 내려가는 지하 8층 규모의 거대한 지하도시이다. 네브셰히르와 니테(Niğde) 사이에 난 도로상에 있으며 주도(州都)인 네브셰히르에서 29km 떨어져 있다.

터키에 많은 지하도시 중에서 가장 큰 곳으로, BC 8~7세기에 프리지아인이 처음으로 세웠으며 당시에는 커다란 돌문으로 안쪽에서 막을 수 있었다.

이후 로마제국의 종교박해를 피해 온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숨어들었으며 7세기부터는 이슬람교인들로부터의 박해를 피하는 데 사용하는 등 주로 종교적인 이유로 은신하려는 사람들이 살았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거주지 유적은 모두 AD 5~10세기의 중기 비잔틴시대에 속하는 것들이다. 수용규모는 3천 명~5만 명이며 넓이는 약185m², 연면적은 650m²이다.

카파도피아의 다른 지하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당, 학교 교실, 식당, 침실, 부엌, 마구간, 창고, 와인·식용유 저장고 등 다양한 생활시설이 갖추져 공동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졌다.

각층은 독립적으로 구별되며 긴 터널을 통해 다른 지하도시들과 연결된다. 다른 지하도시들과 달리 2층에 아치형 천장을 갖춘 넓은 방이 있는데, 종교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3층과 4층 사이에는 제일 아래층에 위치한 십자형 교회로 가는 수직 계단이 설치되었다. 55m 길이의 커다란 통로는 위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올려 보내거나 사람들이 숨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괴뢰메 야외박물관



파샤바 계곡



카이막클로(지하도시)

터키는 오랜 역사와 특이한 지형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이야기가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나라였다.

버섯처럼 생긴 바위들이 늘어선 파샤바 계곡에서 아이들 만화에 나오는 요정 스머프를 떠올리고, 괴레메 계곡이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이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또한 1960년경 한 농부가 잃어버린 닭을 찾다가 발견했다는 지하도시는 몇 백 년 전이었음에도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 사람들의 지혜가 놀라웠다.

하지만 낮은 천장과 폐쇄된 동굴 생활로 맹인과 불구자가 많았을 것이라는 가이드의 말에 모두들 “아-”하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관광지마다 식당과 기념품점이 즐비한 우리나라에 비해 터키는 그러한 상점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신선했다.

가끔 “쫄득쫄득”을 외치며 터키 남부지방 명물 아이스크림 ‘돈두르마’를 파는 터키 아저씨!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수지만 한국관광객도 몇 년 새 제법 많아졌다고 한다.

◀ 콘야 시청 및 시의회 ▶

아나톨리아 고원의 해발고도 1,027m에 위치한 콘야는 셀주크 투르크 시대에는 수도로 번영했던 도시로 셀주크투르크시대의 훌륭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한때 쇠퇴하다가 현재 아나톨리아 종단 철도 개통으로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인 메블라나 교단의 발생지로 알려져 있으며 그만큼 종교색이 강한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사도 바울의 제1회 전도지였던 곳이기도 해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터키는 1965년까지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해왔으나, 1970년대부터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현상이 발생하며 농업 인구가 감소하였다.

현재 터키의 농산부에서 농업에 금전적으로 보조를 하는 한편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실제 경작되고 있는 농경지는 전체 26.3백만 헥타이며, 현재는 전체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터키는 다양한 기후 조건을 지녔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을 하고 있다.

1980년대에 GDP면에서 농업은 수출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터키의 주된 생산 수출 품목은 시리얼, 콩류, 산업 농작물,

설탕, 땅콩, 생과일 및 견과류, 야채, 올리브 오일, 가축 등이다.

터키의 주요 수출 시장은 유럽연합과 미국으로, 주로 견과류와 땅콩류, 면, 담배를 수출하고, 중동으로는 생과일과, 야채, 육류를 수출한다.

1980년대 말, 농산물은 총 수출량의 15%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50%가 농업과 관련된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수출되는 농산물 관련 제품은 60%를 육박한다.

콘야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터키는 주요 농산물, 축산물 자급비중이 99%에 달하는 농업대국의 하나로 터키 정부에서는 중요 작물 재배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도 인상하며 농·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콘야시 의회는 의원1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앙카라 시의회처럼 매월1일 상임위원회별로 토의하여 주요 의사 결정을 한다.



콘야시청에서



콘야 시의회에서

끝이 없을 것처럼 넓게 펼쳐진 콘야 평야를 지나면서 터키는 가진 게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이드는 그럼에도 발전이 더딘 것은 터키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알라의 뜻대로’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며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국민성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넓은 영토와 풍부한 문화유적, 그리고 외국인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터키의 영화를 재현할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다.

◀ 아스펜도스 대극장 ▶



아스펜도스 대극장

터키의 남 중부, 지중해 연안의 도시 안탈리아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아스펜도스 시에 있는 이 야외 극장은 기원후 2세기 아스펜도스의 유명한 건축가 제논(Zenon)에 의해 세워졌다.

지름이 95m나 되는 반달모양으로 약 15,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대한 음향효과를 내고자 석회암과 대리석, 붉은 사암을 적절히 사용했으며 무대 위에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객석에 골고루 확산된다고 한다.

이러한 완벽한 음향효과의 비밀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아스펜도스 대극장에서는 지금도 매년 공연이 열리고 있다고 한다.

로마 번성기에 그 영토는 현재로 따지면 영국에서부터 서유럽, 동유럽, 스페인, 아프리카북부지역, 이집트, 터키, 아르메니아까지였다고 한다.

터키에서 만나는 로마의 역사에서 수준 높았던 로마인들의 문화 생활을 느껴 볼 수 있었다.

완벽하다는 음향효과를 시험하고자 김정미 의원이 무대로 나가 부른 ‘아리랑’! 대극장 전체에 청아하게 울리던 ‘아리랑’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 쉬린제 농가 ▶

에페소스(Ephesos) 지역에 거주하던 그리스인들이 15세기 무렵에 이주해와 형성한 마을이다.

본래 지명은 그리스어로 ‘못생긴’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체르킨제(Çirkince)였으나 1926년에 이즈미르주정부에서 터키어로 ‘즐거움’을 의미하는 현재의 지명으로 바꾸었다. 현재 주민은 약 600명이며, 대부분이 그리스계이다.

산비탈을 따라 조성된 마을의 모든 건물이 흰 회벽에 붉은 기와지붕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풍으로 꾸며져 있어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이들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 요식업 등이 발전해 있다.

특산물로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올리브 제품, 포도, 사과, 복숭아를 이용한 과실주, 수공예 레이스 등이 있다.



쉬린제 농가에서



쉬린제 마을풍경

관광객들은 쉬린제 지역 농가에서 직접 만든 과실주를 시음할 수 있으며, 터키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어느 달동네처럼 산위에 펼쳐진 작은 마을은 참으로 고즈넉했다. 멀미가 날 정도로 꼬불꼬불한 산길을 참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찾는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와인도 와인이지만 마을과 사람들이 주는 고향 시골마을에 온 듯한 친근하고 정겨운 느낌이 좋아서가 아닐까?

쉬린제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적된 사프란볼루 마을과 참 많이 비슷하다. 빨간 지붕에 하얀 벽돌집이 웅기종기 모여 있던 예쁜 마을풍경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듯하다.

◀ 이스탄불시청 시청과 의회 ▶

유럽대륙부터 아시아대륙까지 이어지는 이스탄불은 흑해와 마르마라해,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 주는 보스포러스 대교에 서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한 눈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이다.

로마와 비잔틴,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도시 곳곳이 생생한 역사의 장이 되고 있으며 터키 인구의 1/6인 1,200만 명이 살고 있는 메트로폴리탄이다.



이스탄불 시청



이스탄불 시가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도시로 인구면에서도 전 세계 3번째 대도시이며 2020년에는 세계 최대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EU 및 터키 정부가 이스탄불을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하면서 이스탄불 보존과 이스탄불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스탄불 곳곳에서 문화재는 물론 거주 환경 개선과 유지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성소피아 성당과 술탄아흐메드 모스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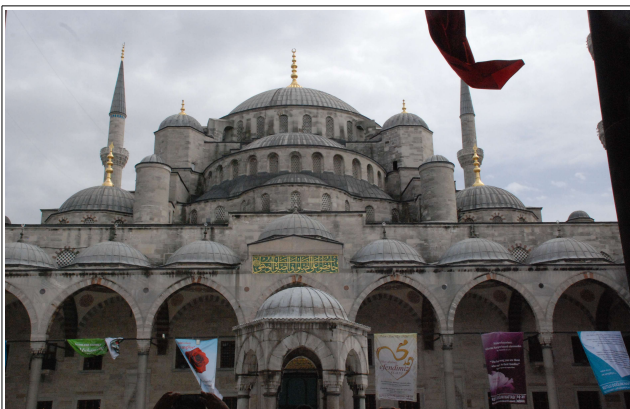
성소피아 성당은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건물로 콘스탄티우스 2세가 360년에 세운 교회가 그 모체로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537년에 세운 것이다.

비잔틴 제국 때는 그리스 정교의 대성당이였다가 1453년 오스만투르크 제국에게 정복된 뒤부터는 이슬람의 사원으로 쓰였으며 1934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쓰인다.

건물 내부에는 비잔틴 시대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모자이크 벽화가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벽화들은 이슬람 사원으로 쓰일 때 덧칠되어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와 고고학자들이 발견할 때까지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제14대 술탄 아흐메드 1세가 1609년에 짓기 시작하여 1616년에 완공했다.

우뚝 서 있는 첨탑 6개는 술탄의 권력을 상징하며, 이슬람교도가 지키는 1일 5회의 기도를 뜻하기도 한다. 사원 앞의 정원에는 언제나 화사한 꽃이 피어 있어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블루모스크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은 건축가가 아니라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건축해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1,500년 전 건축 당시부터 벽돌 사이에 공간을 두고 공기가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진에 대비하여 몇 차례의 지진과 전쟁을 이겨 냈으며 현대식 아파트와 연립주택 15만 채가 무너진 1999년 터키 대지진때도 성소피아 성당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슬람교도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알라가 유일하고 위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2. 매일 일출, 정오, 하오, 일몰, 심야로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 기도해야 한다.
3. 무하마드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것을 기리고자 해가 떠 있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과 성행위 등을 금하는 라마단 기간을 지켜야 한다.
4. 가난한 사람과 공공복지를 위하여 보통 라마단이 끝날 때마다 1년 수입의 2.5%를 헌금으로 희사한다.
5. 이슬람력으로 12월에 메카 혹은 메카 북동쪽 교외에서 열리는 대제에 참가하는 성지순례에 적어도 일생에 한번은 참가해야 한다.

최근에는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 그랜드 바자르 ▶



터키어로 ‘카파르 차르쉬’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지붕이 있는 시장이다.

이곳은 1461년에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시장이었으나 지금은 5000여 개의 가게가 몰려 있다.

카펫, 가죽 제품, 금속 세공품 등의 터키 특산품을 비롯하여 온갖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현재 60여 개의 미로같은 통로에 5,000여 개의 상점이 있으며 2개의 주요 통로 끝에 있는 입구 4개를 포함하여 모두 20여개의 입구가 있다.

3. 분야별 벤치마킹

가. 구미만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시작하자

유럽의 역사를 함께 알아야 이해가 되는 나라, 터키는 그 독특한 역사로 인해 유적지마다 깃들여 있는 이야기가 더욱 매력적인 나라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스머프와 스타워즈, 메두사 등 스토리텔링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한번쯤은 들어 본 유명한 이야기이기에 그 장소가 더욱 매력적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도 지역의 문화재와 거기에 깃든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는 데서부터 구미만의 스토리텔링을 시작하자.

나. 농가 체험을 통한 상품 홍보에 힘쓰자

쉬린제 농가에서는 농가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직접 만든 과실주를 시음하게 하고 상품 판매까지 연계해 홍보와 함께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 구미에도 무을 버섯, 수점 밤고구마, 산동 메론, 고아 방울 토마토 등 지역별로 특산품이 많다.

마을의 특색을 잘 살린 시음 행사로 상품 홍보와 판매를 하는 쉬린제 농가처럼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험행사 등 지역을 홍보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겠다.

다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공동묘지임에도 애절한 사랑이야기로 관광명소가 된 피에르 로티 언덕! 이루지 못한 사랑, 터키여인을 떠올리며 피에르 로티가 자주 찾았던 공동묘지 근처 찻집은 유명한 명소가 되어 있었다.

사람에 대한 작은 배려로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한 좋은 예이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시립화장장 건립 계획 시에도 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등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을 기대해 본다.

참고로 터키의 공동묘지는 사람을 세워 묻는다고 한다.

라 물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자

친절하고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호의적이었던 터키사람들이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물”인데, 우리에게겐 어디를 가든 항상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물이 터키에선 돈으로 사먹어야 되는 식품이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화장실만 이용하는 경우 대체로 터키 돈 1리라를 내야 한다. 터키에서 물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OECD가 지난 3월 제6차 세계 물포럼 개최를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어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물 효율성과 물 수요관리는 물 재이용·재활용과 함께 녹색성장의 핵심요소로 향후 물 수요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수자원 확보와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의 지속적 개발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도 이제 어린이집을 비롯, 유치원, 초·중·고교와 시민 교육 시 물의 중요성과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쉬운 곳에서부터 노력을 서둘러야겠다.

마 **시민들에게 손님맞이 교육을 실시하자**

터키를 방문하여 제일 먼저 놀란 사실은 터키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는 것이다.

공항에서 잔돈을 바꾸려고 처음 만난 터키 아저씨가 “잠시만” 하고는 사라져서 그냥 간 줄 알았더니 다소 먼 거리까지 가서 일부러 잔돈을 바꾸어서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쑥스러워서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듯 하다.

터키관광국에 의하면 2011년 터키방문자의 수가 3,145만6천여 명으로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오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한한 관광자원이 중요한 이유이지만 터키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이고 친절한 태도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면 우리 구미를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한 관심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 대하여 체계화된 손님맞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바 **재래시장에 특별함을 입히자**

터키의 그랜드 바자르는 우리로 말하면 스카프, 도자기, 보석류 등의 아울렛 같은 곳이었다.

일부 안내서에는 그랜드 바자르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비쌀 수도 있다고 한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지 실제 방문에선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그랜드 바자르는 우리 재래시장과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더 정돈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넓은 통로와 미로 같은 특이한 구성, 그리고 서툴지만 관광객들을 스스럼없이 대하며 흥정하는 상인들이 매력적이었으며, 한번쯤 가 볼만한 관광명소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같았다.

어찌 보면 정과 흥이 넘치는 우리 재래시장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정돈되고 체계화된 밝은 모습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재래시장에서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어야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재래시장의 '특별함'을 찾기 위한 즐거운 고민을 시작해 보자.

사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자

터키는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거의 전무하여 사업 현장과 일부 지역 가정에서는 만성적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및 가정용 자가 발전 시스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중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통한 가정용 온수기기 분야는 에게해와 지중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데 이는 터키의 일조량이 총2640시간으로 하루 평균 7.3시간 이상으로 태양열 에너지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터키정부와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가정 내에서 주간에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한 후 이를 축적해 야간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후원하기도 하며, 이 외에도 지열,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구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보편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 한-터키 FTA와 관련하여

2012년 3월26일 우리나라와 터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으며,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 후 발효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7년 이내에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돼 양국간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 석유 등의 품목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으며, 인구 7,400만명으로 GDP기준 세계 17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미래 유망 수출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지닌 EU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나토회원국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종교 문화적 유대가 긴밀하다.

현재 터키는 정부주도로 제9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는 에너지,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자동차부품, 영농 기술 등의 분야에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우리 시의 관심 분야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터키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연계로 구미의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Ⅲ. 결 론(연수 후기)

터키를 직접 보기 전에 터키는 단순히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관광도시로 경제발전 면에서도 아직은 많이 뒤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야말로 생각일 뿐이었다. 먼저 터키 시장은 거대하다. 터키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곳곳에 아파트, 상가 등 건축현장이 많이 보여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터키 경제의 중요성과 협력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 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인구 7400만 명 중 60%이상이 35세 이하인 젊은 나라, 터키의 근본은 하루 5번의 기도와 함께 하는 이슬람 정신과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애국심이라고 한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나 노숙자, 걸인들을 보지 못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느꼈다.

한반도의 3.5배인 넓은 땅은 비옥했으며, 에게해와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멋스러운 유적들은 오래된 역사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터키를 다녀온 사람들은 터키에 대한 그리움을 더 많이 가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벌써 살짝 터키가 궁금해지는 건 미처 다 보지 못한 터키의 무한한 매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7박9일 동안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참으로 열심히 터키란 나라를 둘러보았다.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유적들 그리고 넓고 비옥한 땅과 젊은 국민들이 있는 터키는 분명 가능성이 많은 나라였으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터키 시장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한국의 대 터키 무역수지는 1957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계속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터키는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등 우리 구미와 연계할 분야도 많은 것 같았다.

무엇보다 빨리빨리, 남보다 먼저를 위해 정신없이 달리는 우리와 달리, ‘알라의 뜻대로’, 운명에 순종하는 터키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터키의 이미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이번 터키 연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은 진정한 글로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소통’으로 다문화, 다민족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소중히 하는 의정활동으로 글로벌 문화도시 구미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V. 참고 자료

- ◎ 앙카라시청 제공자료
- ◎ 콘야시청 제공자료
- ◎ 이스탄불시청 제공자료
- ◎ ENJOY 터키(김지선 · 문은정 / 넥서스BOOKS / 2012년)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터키 경제의 중요성 및 협력방안’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보도자료/ 2012.2.3배포)
- ◎ 물의 세계적 중요성 및 시사점(워터저널/ 2012년 5월)